(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먼저, 지금은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건 아도르노입니다.
문화 산업은 대중예술은 양산합니다. 그건 이윤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예술을 양산화하는 과정의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 예술의 본질을 상실한 것
-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는 것

잠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건 아도르노의 생각입니다.
자, 근데 양산화라는 것, 공장에서 무언가를 찍어내면 결국 일어나는 결론은 '표준화'입니다. 생산직에서 일하다보면 6시그마를 지켜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의 실패율을 줄이고 일정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즉, 이런 점에서 아도르노는 대중예술에서
- '창작의 구성' : 창작을 이루는 것들
- '창작의 표현' : 창작의 결과물
그 시작점부터 마지막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규격화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표현 뿐만 아니라 예술의 동기를 이루는 것들까지 모두 획일화된다면, 결국 감상자에게 요구되는 감상능력 역시 획일화될 겁니다. 그리고 감상능력의 규격화가 개인의 개성을 획일화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약간 숨어있는 가정을 볼 수 있죠.
- 아도르노는 감상능력이 개인의 개성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라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가치로 환원하려 한다.

자, 그럼 어째서 대중예술을 표준화시켰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고요? 예술을 상품처럼 표준화하여야 팔 수 있기 때문이죠.
- 그럼 앞에서의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개성 역시 표준화되고, 결국 이 역시 대중예술처럼 가치 환원을 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합니다.

잠깐!!
근데 아직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 예술의 본질을 상실한 것
-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는 것

REMARK '구성' 같은 기초 단어를 정확히 몰라서 의외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
1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 이룬 결과.
2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거나 서술하는 일.
3 색채와 형태 따위의 요소를 조화롭게 조합하는 일..

그험 '창작의 구성'이라는 표현을 집중합시다.
뜻을 알고 보니 '확실히 창작을 이루는 것들'이라고 해석해지는 게 가능하죠!

생각보다 단순한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지문을 엄청 대충 읽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한 번 정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속성을 아도르노가 규정했습니다.
- 동일성 :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
- 비동일성 :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

그리고 아도르노는 주장합니다
- 예술은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지녀야 한다!
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획일화시킨 대중예술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닙니다, 아도르노 입장에서 말이죠.

그럼 하나의 의문점은 해결이 되는군요!
- 예술의 본질을 상실한 것: 비동일성을 상실하는 것
다시말해, 예술은 비동일성을 잃으면 안된다!!

그리고
- 대중은 아름다움을 원합니다.
그럼 안 팔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것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추하고 불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이자 문제점!
-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는 것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알게 해야죠!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은 동일화를 거부하면서 일정한 형식이 없는 방식으로 예술을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사회의 모순과 세계의 부조리함을 경험한다는 것...
-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
결국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은 사회의 모순이자 세계의 부조리함입니다.

그럼 어째서 대중예술은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는 것일까요?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예술은 대중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표준화 되었습니다. 그럼 아름답지 않는 모습, 혹은 추한 모습을 대중들이 경험할 일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모순과 세계의 부조리함은 대중들에게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표준화된 예술을 경험하는 대중은 사회의 모순과 세계의 부조리함을 볼 일이 거의 없게 되겠군요

자 근데 이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아도르노입니다!!

REMARK '체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이버 사전]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

그럼 가치 체계를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일정한 가치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동일된 전체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말하는 '하나의 가치 체계'는
'표준화라는 가치에 따라서 하나로 조직한 전체'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 쇤베르크의 음악은 전위예술이다.
- 전위예술은 동일화에 저항한다.
- 전위예술은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재미있는 건, 아도르노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

-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순간, 폭력적 의도를 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REMARK 내재하다 (內在하다)

1.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다.

(예시)
- 사람 속에 내재하는 천사와 악마의 양면성.
- 그 사건에는 위험한 요소가 내재하고 있다.
- 포스트모더니즘은 많은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결국 저항과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폭력적 의도가 성립하고, 이는 비동일화를 동일화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저항과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아도르노의 입장에서는요.

그럼 동일화에 저항하는 방법은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전위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아도르노가요.

그런데 전위예술이라고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쇤베르크의 음악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 쇤베르크의 음악은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예술은
예술에서 드러나는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동일화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예술에서 드러나는 비동일성을 체험하는 것
≈ 쇤베르크 음악에서의 불쾌함을 느끼는 것

즉, 아도르노가 생각하기에
직접적으로 저항이나 계몽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무언가를 경험하며, 특정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 번 생각해봅시다. 이 문단은 중요한 두 질문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 예술의 본질을 상실한 것
-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는 것

대중 예술은 감상자에게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까지 이에 대한 증명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만 말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지식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식인의 의무입니다. 지식인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상자가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단,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고 아도르노는 나름대로 대응방법을 제시합니다, '전위 예술'이라는.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기 때문에. 예술의 본질을 상실할 리가 없습니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는 것
해결 방법은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선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순과 부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인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술은 순서상 사회보다 순서적으로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드러내는 것이 예술이기 때문에, 부조리를 만드는 사회는 예술을 만들기 위한 근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도르노 입장에서 말이죠.

그리고 아도르노의 미학(美 아름다울 미)에서 예술작품을 통해 읽어야 하는 아름다움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이자 모순, 부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르노가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기 위해 제시한 예술장르는 '전위예술'입니다.

REMARK 전위예술 前衛藝術 , avant-garde

아방가르드는 전위(前衛), 선두, 선구 등의 뜻으로 프랑스의 군사 용어인 '전위(부대의 전초로서 선발된 소수 정예 부대)'에서 나온 말

정치적 의미로 오늘날에는 좌익(左翼)과 같은 말로, 특히 예술상으로는 인습적인 권위와 전통에 대한 반항, 혁명적인 예술 정신의 기치를 내걸고 행동하는 예술 운동을 말한다.

아방가르드 예술작품들

보치오니, 〈공간에서 연속성의 독특한 형태〉, 1914
: **미래주의**

마르셀 뒤샹, 〈Fontaine〉, 1917
:**다다이즘**

살바도르 달리, 〈기억의 지속〉, 1931
: **초현실주의**